

국가·청해진해운, 세월호 생존자에 손배 판결

광주고법 6400만원 배상 결정 유병언 자녀 구상권 첫 인정도 "수습비용 1700억 물어내야"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일가는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중 70%를 부담하게 됐다.

광주고법 민사2부(고법판사 유현중, 류봉근, 김두희)는 "박모(2019년 사망 당시 66세)씨가 국가와 청해진해운, 한국해운조합, 우린 통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4000만원으로 산정하고 박씨가 제출한 과거 치료비 내역 2100여만원 중 일부 등을 토대로 총 64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의 위자료를 5000

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박씨가 사망함에 따라 향후 치료비 등을 재산 정해 총 69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법원은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과 청해진 해운 등이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키고,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가 박씨의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초래했다"면서도 "다만 국가 과실 부분은 사고 유발이 아닌 구조 과정에서만 인정되는 만큼 사고 중 박씨가 입은 신체 상해에는 책임이 없고, 정신적 피해만 일부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25회화물차 기사였던 박씨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구조됐으나 배가 갑자기 기울면서 허리를 다치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생업이 종사하지 못하고 수술·약물 치료를 받았으며, 담도암 판정을 받은 지 수개월만인 지난해 11월 사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지난 17일 국가가 유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에

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53)·상나(51)·혁기(47) 남매에게 총 1700여 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중 70%에 해당하는 액수로, 국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가운데 최초의 승소 사례다. 국가는 세월호 사건의 수습 등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비용을 지출한 뒤, 사고에 책임이 있는 유 전 회장 자녀들과 청해진해운 주주사 등을 상대로 421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가는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49)에 대해서도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대균씨의 경우 적법하게 상승 포기가 이뤄졌다고 보고 기각했다.

유 전 회장을 세월호 참사의 '원인제공자'로 판단한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책임져야 할 범위를 수색·구조를 위한 유류비와 조명탄비, 인건비, 피해자 배상금, 장례비, 치료비 등 총 3723억원으로 봤다.

다만 국정조사사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등 국가의 작용에 관련한 비

용과 공무원 수당, 추모사업 관련 비용 등은 구상권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비용 모두를 원인제공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국가에 부여한 국민 생명 보호 의무 등을 모두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3723억원 중에서도 유 전 회장이 책임질 부분은 70%인 2606억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사무를 맡은 해경의 부실 구조, 한국해운조합 등의 부실 관리 등에도 사고 원인이 있다 보고 유 전 회장의 책임을 70%로, 국가의 책임을 25%로 정한 것이다. 나머지 5%는 화물 과적 업무를 담당한 회사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숨진 유 전 회장아 묻어갈 2606억원을 상속인인 섬나·상나·혁기씨 남매가 3분의 1씩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다만 선주배상책임공제계약 등에 따라 먼저 공제된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할 금액은 1700여 억원으로 정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영락공원 설 앞두고 미리 성묘

19일 오후 광주시 북구 영락공원에서 성묘객들이 설을 앞두고 조상 묘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국토청·지자체·경찰 협의체 도로살얼음 공동대응 나선다

익산국토청·전남도·경찰 등이 도로살얼음 위험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19일 익산국토청 대회의실에서 전남도와 전북도, 전남·북 경찰청, 도로공사 등 15개 도로관리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호남권 도로제설 KSP 협의체'를 구성했다.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는 경험 등을 공유하는 정책 컨설팅 사업 모델이다. 호남권 KSP 협의체에는 익산국토청과 4개 국토사무소(광주·순천·전주·남원), 경찰청, 도로관리사업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호남지역 도로관리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최근 겨울철 운전자들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도로살얼음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꾸려졌다. 앞으로 매년 10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 결과, 우선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이용해 취약시간(밤11시~오전7시) 인근지역 도로관리청 간 기상정보 및 순찰 결과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대형사고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 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겨울철 합동 과적단속을 실시하고, 결빙 취약관리구간에 과속 단속 카메라 우선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묘지 인근 유골 추가 발굴 작업

5·18단체와 광주시가 신원미상의 유골이 발견된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공동묘지 인근 추가 발굴에 나선다.

19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5일간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공동묘지 인근 2800여㎡(870평)에 대해 유골 발굴 조사를 진행한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지난날 19일 신

원 미상의 유골 40여구가 발견되자, 또 다른 유골의 매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최근 광주시에 발굴 조사를 요청했다.

5월 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인 광주시는 해당 부지 인근 도로 신축공사를 중단하고 '대한문화재단연구원'에 발굴을 의뢰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대한문화재단연구원은 2017년에도 옛 광주교도소 암매장 추정지를 발굴 조사한 업

체다. 발굴작업에는 5월 단체 대표들과 광주시 관계자가 참관한다.

업체는 2017년과 동일한 방법인 땅속탐사레이더와 중장비를 동원한 기초 굴착 이후 문화재 출토방식으로 전환하는 발굴조사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에선 "5일이란 단기간에 추가 발굴이 제대로 진행될 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9, 해질 17:48, 달뜨기 03:10, 달지기 13:51

대한(大寒)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0/8	보성	맑음	-3/7
목포	맑음	2/6	순천	맑음	1/9
여수	맑음	2/9	영광	맑음	0/8
나주	맑음	-2/9	진도	맑음	1/8
완도	맑음	3/8	전주	구름많음	1/7
구례	맑음	-2/8	군산	구름많음	1/8
강진	맑음	-1/9	남원	구름많음	-2/7
해남	맑음	-2/8	흑산도	맑음	5/8
장성	맑음	-1/8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안바다	서~북서	0.5~1.5	서~북서	0.5~1.5
	면바다(북)	서~북서	1.0~2.0	서~북서	1.0~2.0
	면바다(남)	서~북서	1.0~2.0	서~북서	1.0~2.0
남해서부	안바다	서~북서	0.5~1.0	서~북서	0.5~1.0
	면바다(서)	서~북서	1.0~2.0	북서~북	1.0~2.0
	면바다(동)	서~북서	1.0~2.0	서~북서	1.0~2.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2:58 / 15:59
여수		11:55 / 23:58
		05:53 / 17:46

◇ 주간 날씨

21(화)	22(수)	23(목)	24(금)	25(토)	26(일)	27(월)
-2/10	3/8	7/10	3/12	5/10	4/9	2/9

◇ 생활지수

	높음
	감기
	높음
	뇌졸중
	나쁨
	미세먼지

아침 기온 뚝... 22일째 흐리고 눈·비

오는 22일째 광주·전남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0일 광주·전남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평년 영하 4도~0도)·낮 최고기온은 6~9도(평년 6~7도)로 예상되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대 10도 정도 차이가 나겠다. 21일에도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6~

11도로 다소 출겠으며, 이날 오후부터 차차 흐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특히 22일에는 오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려 다음날 오전까지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20일 광주·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전남은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5·18 부상자회 신임 회장에 김이종씨 당선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5·18 부상자회) 신임 회장에 김이종(61)씨가 선출됐다.

19일 5·18 부상자회에 따르면 전날 5·18 부상자회는 대의원 투표에서 회장 이사, 감사 등 새 집행부를 뽑았다. 김 회장은 이날 투표에서 총 대의원 49명 중 31명(63%)의 표를 얻어 회장으로 당선돼, 다음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선출직인 회장과 감사, 이사 임기는 3년이며 2023년 1월 31일까지 활동한다.

5·18 부상자회지회 홍보국장, 이사, 감사, 부회장 등을 지낸 신임 김 회장은 1980년 5월 19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광주시 동구 무등고시학원에서 공부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계엄군에 끌려가 구타·연행 당했다.

신임 김 회장은 "5·18 40주년을 맞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회원들의 복지제도를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를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